

무진의료재단, 화순군 최초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1천만 원 쾌척

“변함없는 화순사랑, 기부천사 부부의 아름다운 실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5일 무진의료재단 김재택 이사장과 배우자 이정아 부이사장이 화순군청을 방문해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며, 3년 연속 고액 기부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김재택 이사장과 이정아 부이사장은 2023년부터 매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왔으며, 누적 기부액만 무려 3,000만 원에 이르러 온기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부천사’로 모든 이의 찬사를 받고 있다.

화순군은 기탁식에서 3년 연속 고액 기부자 등재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김재택 이사장은 “화순 출신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화순의 발전을 응원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라며, “기부금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정아 부이사장도 “화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늘 지역과 함께해 왔다”라며,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전하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발전과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3년 연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라며, “보내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무진의료재단은 의료법인 현대



무진의료재단 김재택 이사장, 이정아 부이사장 고향사랑기부금 감사패 수여 기념 사진

요양병원과 현대장례식장, 통합암치료센터, 현대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며,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치료에 전력하고 있다.

수년째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실천해

온 기부천사 부부의 따뜻한 온기나눔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훌륭한 귀감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담양군, 나주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담양군 재무과-나주시 시민봉사와, 상생 발전 응원

담양군 재무과와 나주시 시민봉사와 직원들이 24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재무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는 담양군과 나주시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담양군 재무과와 나주시 시민봉사와 직원들은 각각 160만 원을 기부하며 양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호기부를 지역 간 지속가능한 연대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 문화의 발전과 지자체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강진군, 전쟁영웅 명예 회복 무공훈장 75년만에 전수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 영웅의 명예를 기린다

강진군이 지난 25일 대구면사무소에서 6.25참전 유공자 故윤학현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유족 윤영창씨를 비롯해 대구면 이장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고 인민의 공로를 기리고 명예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故 윤학현 일병은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6.25 전쟁 당시의 전란 속 혼란 속에서 훈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70년 넘게 미전달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19년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특별법

과 육군본부 산하 조사단의 추적과 탐문을 통해 유족을 확인하고, 마침내 이번 전수로 이어지게 됐다.

유족 윤영창 씨는 “잊혀진 줄만 알았던 아버님의 이름이 다시 불리지고 그 공로가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며 “훈장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 그리고 나라 전체의 자긍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깊은 감회를 밝혔다.

전재영 복지환경국장은 “오늘 전수식은 단순히 훈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영웅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는 귀중한 순간이다”라며 “앞으로도 보존 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명예를 지

키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따뜻한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시 진상면,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 행사 성황리에 개최

청년회 주관, 효행자 표창·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광양시 진상면(면장 이병남)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 강당 및 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을 모시고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상면청년회는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경로위안 행사를 마련했으며,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진상면 기관·단체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퓨전 장구 난타 ▲품물단 공연 ▲효행자 표창 ▲장수상·장한어버이상·효부상 표창 ▲아버이 은혜 감사 큰절 올리기 ▲퓨전 국악 공연 ▲인기가수 축

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공연과 경품 추첨에 함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서병성 진상면청년회장은 “경로위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나온 삶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성껏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병남 진상면장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시는 진상면청년회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젊은 세대가 성장할 수 있었다. 젊은 세대가 이번 행사를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드림스타트, ‘스트라이크 드림 볼링 교실’ 성료

드림스타트 아동 15명 대상 6회 진행...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나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트라이크 드림 볼링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티셔씨 볼링장에서 전문 볼링 강사의 볼링 기본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올바른 볼링 자세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동들은 볼링 용어와 매너, 기초 자세 등을 배우고 친구들과 실전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볼링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점점 향상되는 볼링실력으로 성취감 및 볼링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향상됐다.

하순혜 나주시 가족아동과장은 “볼링 교실을 통해 아이들 체력이 증진되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